

發 刊 辭

이번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3호는 「국제적 법질서와 국내법」이라는 주제의 특집호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도 국내적·국제적 분야의 경계가 허물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는 법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적인 쟁점과 이슈에 대한 분석만으로도 별문제가 없었던 예전과는 달리 법학의 거의 모든 분야가 국제적인 관련성 하에서만 제대로 이해되고 문제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제적 법질서와 국내법」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법학」지에는 국제적 법질서와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수행된 민법, 그 중에서도 물권법과 친족법, 지적 재산권법, 그리고 경제법 등 분야의 논문들이 수록되었습니다. 물론 국제경제법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국제법 자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포함되었습니다. 본 「법학」 특집호가 우리나라 법학이 앞으로 국내 법질서의 필연적 동반자인 국제적 법질서에 대하여 더욱 더 관심을 기울이고 안목을 키워가는 전기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후에도 계속 특집의 일환으로 「분단 60년의 법적 조명」, 「법, 관습, 전통」, 그리고 「인구문제와 법」 등의 특집호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에서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교내 연구소 평가에서 우리 연구소가 지난 2003~2004년도 활동과 관련하여 “최우수 연구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주신 연구원 교수 여러분과 법대 학장단 기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지원을 해 주신 외부의 여러 기관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학연구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005년 9월 30일

法學研究所長 崔秉祚 謹書